

“구례군정을 손안에”... 모바일 소통 호응

실과장 직접나서 현장 목소리 군정에 접목 매주 목요일 소통전략회의서 소통결과 분석

구례군이 능동적인 실과장 모바일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의 손안에 군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연초부터 실과장이 모바일 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18개 부서장이 소관 이해관계자 및 민원인에게 다양한 정보, 민원처리결과 등을 소개해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모바일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실과장이 직접 군민과 소통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접목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군정의 완성엔 업무추진성과가 군민에게 전달되어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코로

나19로 인해 대민접촉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 맞게 모바일 소통을 펼쳐왔다.

군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주 목요일 소통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소통결과를 분석하고 주간 소통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문화관광실, 경제활력과, 안전도시과, 환경교통과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연인원 15,241명에게 126건의 행정정보를 전달해 실시간 편의를 제공하였다.

수해피해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안내사항 문자를 받아본 A씨는 “손해평가 결과물을 받았습니



다. 실로 오랜만에 수해민들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노력해준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회신했다.

관내여행자에게 지원하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조건 안내사항을 전달받은 한 여행사 대표 B씨는 “적극행정에 박수를 보내며 세심한 안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과의 대화 등 공식적인 소통채널이 단절되어 있어, 언택트 방식의 실과장 모바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며 최근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실과장의 소통에 대해 신선한 군정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군은 군정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소통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우수부서를 시상하여 구성원의 능동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영어지원 바우처 신청·접수 30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화순군은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영어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민을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양식 면허·허가증을 보유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양식하고 있는 어가다. 증빙 자료를 통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매출액 또는 소득 감소가 입증된 경우에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등 총 15개 어종이다.

영어지원 바우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산림청)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가는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등 각종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자격 요건과 매출 감소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격 요건과 매출 감소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가에는 5월 17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권 선불카드 2매)가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양식에 필요한 물품, 생필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고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을 넘겨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배신제 봉행 ... ‘나주 배 풍년 기원’

나주배원협과 배박물관에서 농업인 안녕 기원



나주시는 지난 9일 나주배원협·농업협동조합과 함께 나주배박물관에서 배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배신제’ 봉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신제’는 전국 최대 주산지인 나주 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한해 농사 풍년과 농업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 의식으로 배꽃이 만발한 4월 중 치러진다.

봉행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소인원 참석 및 제례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했다.

남평향교의 전통 제향방식으로 초헌관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아헌관과 종헌관은 김영덕 시의회장과 김재욱 나주배원협수석이사 등이 맡아 제례에 참여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몇 년간 반복돼왔던 이상 저온현상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업인의 어려움과 피해가 컸던 탓에 올해는 무사히 한해 농사를 짓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례에 참여했다”며 “농업인의 땅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온, 자연재해 예방 대책 추진은 물론 과수 감염병 방지를 위한 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이달말부터 기차마을 내 짚풀공예·대장간 농경 체험 오픈

곡성 심천강기차마을 내 짚풀공예 체험관과 낙죽장도 전시관이 4월말 오픈을 목표로 체험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새 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짚풀공예 체험관과 낙죽장도 전시관은 기차마을 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관광객의 눈길을 끌지 못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기차마을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방문객이 더욱 줄었다.

짚풀공예 체험관은 농기구, 짚풀공예, 민속신앙 전시관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작물 파종, 성장, 수확, 저장 등 농경생활의 모습을 짚풀공예와 연결해 스토리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낙죽장도 전시관에는 대장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금속을 달궈 담금질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안개 농촌체험마을과의 협업 운영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와 다양화를 꾀할 생각이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군, ‘농촌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과 지역주민의 교류 기회 마련

담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를 위해 ‘농촌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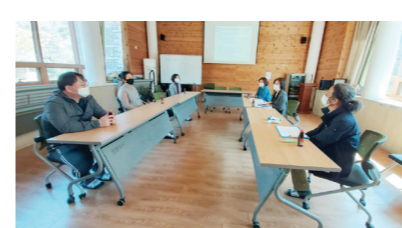
‘농촌서 살아보기’는 예비 귀농귀

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형을 구성해 도시민에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 체험, 농업정보 습득,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담양군은 대덕면 운수대통마을이

선정돼 귀촌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 18세 이상의 도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주거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연계, 인센티브 지원 등을 지원하며, 마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참가자 연수비도 지급된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사전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3팀을 선정해 운영마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참가자를 수시 모집한다.



담양=박종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군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